

농작물 재해보험 40억원 투입

남원시, 농가 소득 · 경영안정 도모... 가입 시 농가 부담금 7~10%로 부담 최소화

남원시는 최근 잦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에 약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인들이 태풍, 우박, 동상해(언피해), 일소(햇볕 쬔)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 농작물은 76종이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을 재배하더라

도 품목별 파종 시기와 수확시기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다르므로 재배작물의 가입 시기를 꼭 확인해야 하고, 농축협이나 원예농협을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품목은 고구마, 옥수수, 벼, 감귤, 대파로 지급부터 6월 중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전면 확대 · 개편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전국 시행 9개 품목으로 운영되며, 남원시는 복숭아가 시범 품목으로 추가돼 10개 품목 가입이 가

능하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보장하던 자연재해 및 병충해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재해보험 가입 시 농가 부담금이 7~10% 정도면 가입할 수 있도록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독려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

순창군-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도농교류 활성화 협력

순창군과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는 지난 9일 쉼랜드에서 ‘농촌사랑 동행순창’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건강장수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조비룡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장,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에 대한 뜻을 모았다.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학술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적 가치, 문화적 특성, 고령사회 기술 및 정책 개발 등 다방면의 연구와 산학연 협력을 통해 고령사회 대응을 선도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회원 및 임직원 연수 · 워크숍 시 쉼랜드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순창투어 운영을 통

한 도농 간 교류 확대 △건강장수 · 힐링 관련 공동사업 발굴 및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리더최고위과정 제2기 수강생들의 현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참가자들은 쉼랜드 견학을 비롯해 강전산 트레킹, 고추장 체험 등 순창의 자연과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여자 중 (주)동남건설산업개발 박남숙 대표는 지난 토요일 일정을 마무리하며 “1박 2일 순창에서 활동하고 간다”는 메시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조비룡 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장수와 힐링을 주제로 한 도농교류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앞으로도 순창군과 함께 협력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와의 협약은 순창이 가진 ‘건강장수’ 자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향후에도 다양한 교육 ·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힐링 순창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과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는 지난 9일 쉼랜드에서 ‘농촌사랑 동행순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 의견 수렴 ‘남원시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남원시는 12일,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시청 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남원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청년정책 전반에 미래세대인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남원시 청년정책위원회(위원장 민선

식 부시장)를 운영해 청년정책 시행 계획 심의 등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시 청년정책 발전 방향 등 2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며, 위원들은 일자리 · 주거 · 교육 등 청년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논의된 안건과 제안은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선식 위원장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남세자 편의 제공 나서

6월 2일까지 종합 · 지방소득세 도움 창구 운영

임실군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를 돕기 위한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군은 이달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센터’를 군청 1층 종합민원과에 설치 ·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매년 5월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달로 짧은 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이 늘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편의 제공을 위해 군청사 내에 임시 세금 신고 납부 장소를 마련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일반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손택스(모바일앱)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 연결되므로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등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한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전용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1661-6669), 임실군 재무과(063-640-218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신고 마감 기한일에는 원활한 신고 · 납부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 · 납부해 주시길 바라고,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기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향교지구 주차타워 준공식 개최

남원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향교동 332번지 일원에 건립된 향교지구 주차타워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행사는 시립농악단의 사물놀이 공연(10:10) △경과보고(교통과장) △기념사(남원시장) △축사(시의장, 도의원 등)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된다.

향교지구 주차타워는 남원시가 총사업비 37억 원(도비 15억, 시비 15억, 특별조정교부금 7억)을 투입해 조성한 도심형 공영 주차시설로 2024년 3월 15일 착공해 지난 2025년 4월 30일 준공을 완료했다.

해당 주차타워는 철골조 2층 3단 구조, 연면적 2,225㎡, 총 111면 규모의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차량 △아동 배려 차량 △전기차충전 주차공간을 충분히 마련하면서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했으며, 당분간 시범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이후 유료로 전환해 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이번 주차타워가 향후 한교동 일대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 제공을 기대하고 있으며, 주차타워에는 자동 차량 인식시스템, 화재 · 재난 대응 시스템, 급속 · 완속 전기차충전기 등 스마트 주차 인프라도 구축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소방서, 금과면 주택 화재 신속 진압... 인명피해 없어

순창군 금과면 동전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순창소방서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다. 화재는 지난 11일 오후 4시 6분경 발생했으며, 당시 가족이 야외아궁이에서 나물을 삶던 중 ‘두두둑’소리를 듣고 외부에서 불길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순창119안전센터는 15분 만에 현장에 도착, 4시 31분 초진(화재 확산 위험이 현재지 줄어든 상태), 5시 12분 완진(소화 활동 필요성이 사라진 상태)을 완료했다.

진화 작업에는 소방공무원 30명을



포함해 경찰, 한전 등 유관기관 인력 48명과 차량 20대가 투입됐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 약 61㎡와 가재도구 일부가 소실되거나 그를 총 1,084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등

순창군, 1269필지 대상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순창군은 지난 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내동 · 대가 · 두승지구 경계 결정을 위한 제1회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면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을 해소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강대현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판사) 주재로 사업지구 면장, 토지소유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의 내용은 2024년 내동, 대가, 두승지구 경계결정(1,269필, 471,752.1㎡) 사항을 심의 · 의결했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 경계는 확정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치매 극복 선도학교
치매 파트너 교육 실시

임실군치매안심센터가 지난 3월부터 두 달에 걸쳐 치매 극복 선도학교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 교육을 실시했다.

치매 극복 선도학교 지정 사업은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관내 학교를 주제로 동참시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가정과 사회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치매 파트너 교육은 치매 극복 선도학교로 지정된 청운중학교, 오수고등학교, 임실동중학교를 대상으로 치매 바로 알기, 치매 파트너 되기, 치매 예방 수칙 알기 등으로 학생 눈높이에 맞춘 치매 파트너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해 바로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치매 어르신들의 사회적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